

□ 정책방향

- (기후변화 대응·국가정원 조성) 한·아세안 간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문화교류 선도를 위한 협력 사업으로 국가정원 조성 추진
 - * '19.11.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(부산) 時 공동의장 성명에 채택된 산림 관리 협력 사업
- (도민이 만족하는 산림복지) 코로나19 치유 등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맞춘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, 편리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
- (임업인이 잘사는 경남)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기여

□ 추진실적

실적1 한·아세안 국가정원 및 체계적인 정원문화·산업 활성화 추진

- ① 한·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대상지 경남도내 거제지역 선정
 - * (사업기간) 2022 ~ 2030년, 9년
 - * (사업비·조성면적) 2,000억 이상 소요 / 50ha 이상 면적
 - * (활동·실적) 산림청, 기재부 30여회 방문, 타당성 설명·선정 / 기본구상 용역비 5억원 확보
- ② 한·아세안 국가정원 추진 등 정원도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 - * (일자) '22. 2. 15. (협약기관) 경상남도, 산림청, 거제시 (내용) 정원 진흥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 경남(거제)을 정원도시로 중점 육성·지원('30년까지), 전국 전파
- ③ 한·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
 - * (기간) '22.5.~12. (수행) 한국종합기술 (사업비) 475백만 원
 - (내용) 후보지(경남 거제) 적정성 및 입지선정,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등
- ④ 정원문화 육성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 - * (일자) '22. 5. 25. (협약기관) 경상남도, 경남관광협회, (사)경남민간정원협회

실적2 '전국 최초'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

- ① 금원산 자연휴양림 주말 개념 변경 조례개정 (이용률 향상, 만족도 제고)
 - * (주말개념) 금, 토, 공휴일 전일로 규정
 - * (추진배경) 금요일 이용률 30% 정도 / 토, 공휴일 전일 이용률 80%이상
 - * (개선검토) 주말요금은 평일보다 30% 높고 주말로 규정된 금요일 이용률 저조, 금요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일요금으로 책정 필요
 - * (개선사항) 주말로 규정된 요일 중 금요일은 제외하는 조례개정

②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선택제 실시 (1일 휴가로도 이용 가능)

* (추진배경) 금요일 퇴근시간 이후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* 5개 자연휴양림(10개 객실): (기존) 입실 15시, 퇴실 11시 → (개선) 입실 18시, 퇴실 15시

③ 치유의숲 참여 선택기회 확대 실시(운영 방법 다양화→이용자 만족도 향상)

* (기존) 사전 예약, 단체, 2시간 고정 프로그램

(개선) 당일 예약 가능, 1인 참여 확대, 프로그램 시간 탄력적 운영(수요자 선택제)

실적3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로 산림복지기본선 충족

① 경상남도 산림복지진흥계획('20~'22년)에 의거 체계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

② 생활권·도심권 내 산림휴양시설 조성 (일상 속 산림복지서비스 실현)

*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, 김해 용지봉 자연휴양림, 도심지 유아숲체험원 23개소 등

③ 산림휴양시설 단지화 (기존시설과 연계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)

* 진주 월아산 자연휴양림,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의 경우 자연휴양림, 치유의숲, 산림레포츠 시설, 등산로 연결사업 등을 연계하여 이용객 만족도 제고

실적4 임업인 소득증대와 수도권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임산물 판매망 구축

① '민관 협업', 경남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(서울 양재동, 4.15.~17.)

* 10개 시군(22개 품목) 참여, 도-시군-산림조합-임업후계자협회 협업으로 추진

□ 주요 성과

성과1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본격 추진, 정원인프라 확충·방문객 증가

- ▶ 용역비 5억 확보, 업무협약 체결('22.2.15.),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('22.5.19.)
→ (기대효과) 연간 방문객 1천만명, 경제가치 7천억 원 ~ 1조원대
- ▶ 민간정원 : ('21) 18개소 → ('22) 22개소, 전국 70개소 중 30.6% 차지
- ▶ 정원 방문객 : ('20) 321,945명 → ('21) 564,368명, 전년대비 242,423명, 175% 증

성과2 '전국 최초' 이용자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생활권·도심지 내 조성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운영활성화 도모

- ▶ '19년 대비 이용객 1,494천명(증 32.6%), 만족도 91.5점(증 0.5점) 향상
- ▶ 주말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금원산 휴양림 이용률 : 30%대→50%대 이상 향상 기대
- ▶ '22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(산림휴양·녹색공간조성사업) 평가 "우수" 등급
- ▶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* 사용 확대 * 취약계층에게 10만원상당 이용권 제공
: (당초 계획) 휴양림 12객실 → (4월 기준) 20객실(증 67%) 확대

성과3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 및 단지화로 기존 시설과 연계성 강화

- ▶ 산림휴양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
 - ('19년) 66개소 운영 → ('22년 현재) 101개소 운영, 27개소 추가 조성중
- ▶ (거창 향노화힐링랜드) 제4회 산림치유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및 문체부·한국관광공사 선정 경남 유일 '22년 웰니스 관광지('22.4.22.)
- ▶ (함양 대봉산 휴양밸리) 국내 최장 모노레일 및 공중외줄이동시설(집라인) 등 차별화된 산림레포츠 시설운영으로 하루 최대 2,860명 방문('22.5.15.)

성과4 수도권 소비자 직거래 행사를 통한 경남임산물 홍보 및 판매망 확충

- ▶ 판매 실적 1.1억 원 달성, 사후 직거래 판로 확보, 경남도-산림조합-경남임업인 후계자회 협업으로 추진하여 임업인 자긍심 고취
- ▶ 산청 봄 나물, 밀양 대추, 하동 고사리, 밤 등 대부분 물량 완판
- ▶ 통영 황칠나무의 경우 2억원 이상 판매 상담하는 효과 거양
- ▶ 자체 도비 확보, 임산물 단독 브랜드로 판매행사 최초 시도(적극행정)
- ▶ 판매행사에 참여한 임업인들의 만족도 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음, 향후 행사도 적극 참여하여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-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원인프라 조성·관리, 정원관광, 정원 문화 확산, 정원관련 교육과 시민참여 등 다양한 정책도입 필요
- ⇒ (대책)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